

# 전기기사 법정교육을 마치고

글/남 상 윤(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사 법정교육을 '93. 7. 22~24일까지 3일간 서울 성동구에 있는 도로교통안전회관에서 받았다.

첫날부터 늦으면 안된다는 강박관념에 탁상시계의 벨소리 시간도 조정해 놓고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아빠는 몇시에 일어나서 나가야 된다는 예비통고도 하면서 부산을 떨었다. 교육이 시작되는 첫날 출근길과 정반대의 교육장소로 가는 길은 왜그렇게 막히는지 겨우 도착하니 8시 30분, 이번 교육을 함께 받게 된 각 사업소의 여러 동료직원들과 다른 회사의 평소 아는 분들과 정답게 악수를 하고 교육참석 신고는 교육등록증과 교육교재를 교환하는 것으로 끝이었다.

"참 신고한번 편해서 좋군"

중얼대면서 맨 앞자리에 앉았다.

기사협회 교육과장의 협회 건물이 아닌 교통회관을 빌려서 하니 딱딱하고 좁은 의자에 불편이 많겠지만 이번 교육은 전기기사를 위한 교육이고, 협회는 여러분들 집이나 마찬가지로 집이라는 푸근한 생각을 갖고 편안한 마음으로 교육을 받아 달라는 당부의 말을 듣고 보니 마음이 놓이는지 교육생들은 자세를 고쳐 앉으며 긴장을 푸는 모습이 역력했다.

협회 회장의 특강을 통해 3만2천여명의 기사들이 단합하여 서로의 잘못을 헐뜯기보다는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어 다같이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과

일부 중소기업체 대표들이 전기기사(안전관리담당자)를 보는 나쁜 시각 4가지와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하기가 어려웠으나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전기기사들의 앞날을 생각하고 전기설비의 특성을 살려 조목조목 이해를 시켰다는 말씀에 많은 교육생들이 공감과 협회장에 대한 신뢰를 다지는 것 같았다.

교육내용은 한마디로 좋았다.

교재는 읽어보면 수준도 높고 새로운 기술소개와 다양한 사례들이 열거되어 있으며, 강사도 안정된 자세로 열강을 하여 마음이 흡족하였다. 몇개 과목은 저자와 강사가 일치하지 않아 교재와 동떨어진 내용이 없지 않았으나 예년의 직무교육 보다는 운영 방법이나 참여도가 참 좋다고 느껴졌다.

교육 중간중간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빨강, 노랑, 파랑의 각종 색깔 출석표를 기입하면서 이는 교육생들의 이탈을 막는 강력한 무기인지? 글썽! 민방위 교육에도 없는 이런 방법까지? 머리가 좋다는 전기 기사들에게 잘 먹혀드는 구시대 방법인지 아니면 우리 전기기사들만 알고 있는 전통 계승문화인지 잘 모르겠지만…… 좀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서로 잘 모르는 몇몇의 수강생과 교육내용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았더니 3일간 교육하면서 이렇게 저렴한 교육비는 없고, 이런 교육에서 정보를 얻어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에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고, 프로

그래머블 컨트롤러(Programmable Controller)에 대해서는 별도로 타 교육기관의 교육을 더 받았는데 수강료가 너무 비싸다고 했다. 그리고 병원에서 근무한다는 전기기사는 병원의 점지시설에 대해 이제 자신을 얻었다고 했다. 또 어떤사람은, 안전사고 사례를 들을 때에 우리 회사는 괜찮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은 교육시간에 줄거나 신문을 보는 사람이 제법 있다는 것이다.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너무 도도하게 신문을 국민학생 책 읽듯이 펴들고 보기에 점잖게 타일렀다.

"앞에 강의하는 강사에게 미안하니 밖에 나가 보시지요"

하였더니 그도 겸연쩍었던지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 버렸다.

같은 회사의 직원과 임원 또는 대표, 20대와 할아버지뻘되는 70대와 뒤죽박죽 앉아야 되는 좌석배치 등은 법정 직무교육이라는 등질성과 저렴한 교육비에 따른 어려운 여건을 심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선후배간의 최소한의 예의는 서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 동일 직업인의 너무나 당연한 기본적인 예의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를 탈때나 음료수대 앞에서 후배전기기사들의 양보할 줄 모르는 뻔뻔한 행동과 심지어 맞담배질로 선배들을 슬프게 하는 행위가 나를 우울하게 하였다.

일부 강사들이 고쳐야 할 점은 예년에 비해 아주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사 교육이면 전기안전관리사로서 갖추어야 될 소양이나 필요한 직무교육에 충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공사의 안전관리대행은 '98년도까지만 한다."는 등의 무책임한 발언은 삼가해야 할

것이다. 전기안전공사의 안전관리대행은 전기사업법 제 45조 1항에 규정되어 있고 법은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만든 것이므로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기본법을 무시한 발언은 곤란하다.

물론 법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개정될 수도 있으나 이는 별도의 자리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 되어야 할 일이지 전기사업법에 의한 법정교육 강의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아울러 전기기사협회에서 전기기사들의 교육 전문기관으로 크게 성장하길 전기기사의 한사람으로 바라는 바가 크다. 현재 한국산업기술원 등에서 전기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기기사협회의 직무교육비 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강료가 높다. 이러한 다양한 직무관련 교육을 전기기사협회에서도 개발 시행하고, 이런 전문 직무교육을 일정 시간이상 이수한 자는 법정직무교육시 첫째날의 소양교육만 의무적으로 이수하면 되도록 하는 등 보다 전문화되고 탄력적인 교육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함께 교육받는 사람 중에서 3년전 여수에서 알게 된 대기업체 부장도 2명이나 만났고, 수원에서 알게 된 10여년전 옛직장 동료도 만나본 것은 이런 같은 직업의 직무교육장이 갖는 또다른 즐거운 인연이고, 오랫동안 만난 사람들과 간단한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웃고 떠드는 것도, 하루 일과가 끝난 후 신당동 횃집에서 소주 한잔 걸치는 맛도 교육생들끼리의 부담없는 기쁨이었다.

끝으로 전기기사협회 회관이 마련되어 좀더 좋은 환경의 교육장소와 점심도 구내에서 먹을 수 있게 되고, 주차비 없는 주차장에서 차도 주차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 웃으며 삽시다.

#### ☞ 이른바 월급 도둑놈

고참 사원 김부장이 신병으로 입원했다. 맨 먼저 문병을 간 것은 사장님이었다.

「김부장, 걱정할 것 없네. 회사에선 모두들, 자네

가 빠진 몫도 벌충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네. 다만 문제는……」

사장님은 말꼬리를 흐리다가,

「다만 문제는, 지금까지 자네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통 알 수가 없단 말일세.」